



마을학회, 21세기 농촌의 삶과 앞을 위하여

마을학회○○○

박영선

21세기에 들어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의 삶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은 인류가 농경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수천 년간 지속하여 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한동안 잊혔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서유럽과 북미가 주도한 산업자본주의 문명은 강대국과 대도시, 전문가 중심의 개발과 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소국, 지방, 농어촌, 마을, 보통사람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의 나눔과 차별이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심각한 폐해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 가득 찬 대도시에 빨빨이 흩어져, 신상품을 구매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제한으로 개발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농촌과 도시, 지역과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전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대기오염,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며 인류라는 종은 절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자들의 경고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초래한 이 같은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세기 문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되어온 농촌 공동체, 마을에서의 삶과 잊힌 전통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두리’로 치부되었던 농어촌,



지방, 시골, 마을이 지금의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구현할 ‘살아있는 장場’이라는 깨달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평등하고 생태적인 공존과 통합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연구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20세기 연구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인과 활동가와 연구자가 통합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은 농경 공동체의 오랜 기억과 역사가 살아있는 흙과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근현대적 시민 평등과 절제와 부조의 생태적 공존 가치를 실천하는 농민교육과 유기농업, 생활협동조합의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노고와 참여로 이루어진 이 독특하고 소중한 조건은, 21세기가 추구하는 평등과 통합의 삶을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우리 마을의 깊고 귀한 경험과 특별한 조건을 되살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건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마을의 삶과 앎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의 과정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전 지구의 여러 이름 모를 마을들과 공유할 때입니다. 마을마다 쌓아온 특수한 경험과 조건을 서로 나누고 배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지속 가능한 보편 경험으로 넓혀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20세기 산업자본주의가 초래한 닫힌 마을 닫힌 지역들의 고립과 문명적 위기를 넘어 21세기의 열린 마을 열린 지역들의 살아있는 연대와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시도로서, 마을학회를 창립하려 합니다. 마을에서 학회 라는 형식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學會는 풀어서 말하면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새로운 공부 모임’입니다.

마을학회에서는 ‘삶과 앎의 통합’이라는 21세기적 가치의 큰 바탕 위에서 마을 사람, 마을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그간의 단절되고 편향된 관계를 넘어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앎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확장해서 마을의 삶으로 새롭게 되돌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서 학회를 창립하는 뜻은 뚜렷하고 깊습니다. 21세기에 다시 요청되는 가치인 삶과 앎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함께 새롭게 공부하는 마을과 21세기 농촌의 문명적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이제 마을학회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